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설명자료	2022. 4. 20(수)	
		배 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 윤순희 (Tel. 02-2100-2182)
			* 엠바고 : 즉시 사용

총리 후보자의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장 재직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4개월간 재직하였습니다.
- 충북도(도지사 이시종)에서는 무예마스터십을 국제대회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1회 대회인만큼 해외 각국에 무예마스터십을 알릴 적합한 인물로 국제경험이 풍부한 한 후보자를 조직위원장으로 초빙하였습니다.
- 한 후보자는 조직위원장으로서는 대회를 총괄하면서, 특히 해외 주요 인사에게 무예마스터십을 홍보하고 대회에 초청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대회의 개회식과 폐막식에 참여하여 개회와 폐회 선언을 했으며 D-100일 행사 등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의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주한미국대사, 주한 영국대사 등 주요 인사의 개회식 참석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회 중에는 출전 선수를 격려하였습니다.
- 충북도에서는 한 후보자에게 명예도민패를 전달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 후보자는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조직위원회 보수규정'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개월간 월 500만원, 총 2000만원을 받았으며, 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 법인카드는 지급받았지만,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당시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첨부합니다.

청주무예마스터십, 큰역할한 한덕수 조직위원장께 감사

입력 2016-09-11 01:08

| “앞 뒤에서 물심양면… 대회개최 도와”



▲이시종 충북도지사(우측)는 한덕수 공동조직위원장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패와 선물을 드리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북도)

아주경제 윤소 기자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와 발걸음을 함께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낸 한덕수 공동조직위원장. 지난 5월 25일, 이 대회 공동위원장에 위촉된 이후 대회기간 내내 보여준 그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한 위원장은 오랜 외교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각국 주요 외빈들의 초청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나라별 주한 대사와의 면담, 외교부 방문 등 대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외빈 초청에 열의를 다하신 한 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면서 "이번 무예마스터십 성공한것도 한덕수 공동조직 위원장 덕분이라고 높은 평가"를 했다.

한 위원장은 무예마스터십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와 폐회선언을 맡으며, 대회 시작과 끝을 알리며 대회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국제회의를 비롯한 주요 외빈과의 만찬 간담회, 리셉션, 주요인사와의 환담 등 공식행사를 소화하고, 전 종목의 경기장을 찾아 관람하고 시상하는 등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초 위원장 위촉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 외에는 무술을 모른다던 한 위원장이 각 경기를 관람하며 “조금만 더 보고가자”면서 각 무예종목마다 애정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는 무에타이 경기에서 코치가 패한 상대방 선수에게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먹여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무예는 일반 스포츠와 같이 경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에 앞서 예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무예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 추켜세웠다. 공동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되어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치른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참가 선수단 등 대회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는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총목도가 앞장서 해결해 준 것은 정부가 고마워야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종종 전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대회 마지막 날인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의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무예'가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대회의 주도권을 갖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세계 스포츠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2019년에 2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IOC, 스포츠어코드, 국제경기연맹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목별 관람 포인트 및 경기 이해도 등을 높여 나간다면 세계 스포츠계에 기여하는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충북도는 대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함께해준 한덕수 위원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폐회식이 열린 지난 8일, 명예도민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고찬식 사무총장은 “열정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해준에 조직위 직원들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위원장의 폭넓고 적극적인 행보에 대회가 보다 빛날 수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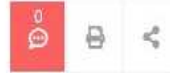
한편, 한 위원장은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그는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거쳐 제38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개최하는 무예마스터십은 오는 9월 2~8일 청주시 일원 81개 나라 1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청주무예마스터십의 큰일꾼 '한덕수' 공동위원장

충북도, 감사의 마음 담아 8일 폐회식서 '명예도민패' 전달

김종혁 기자 입력 2016-09-11 17:22 | 수정 2016-09-11 17:43



f 대회 개최 성공위해 폭 넓은 적극 행보 '눈길'



▲ 한덕수 무예마스터십 공동조직위원장이 지난 8일 대회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한덕수 공동조직위원장이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개최를 이뤄낸 숨은 일꾼으로 알려지며 대회기간 내내 보여준 그의 적극적인 행보가 여론에 회자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이 대회 공동위원장에 위촉된 후 오랜 외교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각국 주요 외빈들의 초청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유네스코 등에 초청서한문을 전달하고 각 나라별 주한 대사와의 면담, 외교부 방문 등 대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외빈 초청에 열의를 다하며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했다.

미국대사의 참석 역시 한 위원장의 노력이 컸다고 조직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무예마스터십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와 폐회선언을 맡으며 대회의 시작과 기간 내내, 마지막까지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평이다.

대회 기간 중에는 국제회의를 비롯한 주요 외빈과의 만찬 간담회, 리셉션, 주요인사와의 환담 등 공식행사를 소화하고 전 종목의 경기장을 찾아 관람하고 시상하는 등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초 위원장 위촉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 외에는 무술을 모른다던 한 위원장이 각 경기를 관람하며 "조금만 더 보고가자"면서 각 무예종목마다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무예타이 경기에서 코치가 패한 상대방 선수에게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먹여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무예는 일반 스포츠와 같이 경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에 앞서 예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무예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 추켜세웠다.

또한 공동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치른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참가 선수단 등 대회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는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충북도가 앞장서 해결해 준 것은 정부가 고마워야 해야 할 일"이라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대회를 치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대회 마지막 날인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의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무예'가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대회 of 주도권을 갖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세계 스포츠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2019년에 2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IOC, 스포츠어코드, 국제경기 연맹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목별 관람 포인트 및 경기 이해도 등을 높여 나간다면 세계 스포츠계에 기여하는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 충북도는 한덕수 무예마스터십 공동조직위원장에게 지난 8일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충북도

도는 대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함께해준 한덕수 위원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폐회식이 열린 지난 8일 '명예도민패'를 전달했다.

고찬식 사무총장은 "열정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해줌에 조직위 직원들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다"며 "위원장의 폭넓고 적극적인 행보에 대회가 보다 빛날 수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그는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거쳐 제38대 국무총리를 지냈다.